

20-40대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활용

박경실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Impact of Knowledge and Attitude of HIV/AIDS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to 40s : An Analysis of the Community Health Survey

Kyong Sil Park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40대 HIV/AIDS의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만 49세로, 최종 분석 대상자는 182,315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HIV/AIDS의 지식은 정답률 69.4%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나, 개별 문항에서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20대가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HIV/AIDS의 태도율은 44.3%로 부정적 태도수준을 나타냈다. HIV/AIDS 지식 및 태도는 남성일수록, 미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농림어업, 주부/무직보다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군인일수록 지식 및 태도의 점수가 높았다. 지식과 태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r=0.27$, $p<0.001$)를 보였다. 에이즈 관련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이 있었으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IV/AIDS 지식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구축을 위해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연령 및 특성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investigates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HIV/AIDS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to 40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results of the 2011 and 2013 community health survey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The study subjects were 20 to 49 years old, and the final analysis included 182,315 subjec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s, ANOVA,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rvey results showed a high level of knowledge of HIV/AIDS, with 69.4% correct answers. Most individuals lacked knowledge regarding routes of infection, and those in their 20s had the low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s for attitude toward HIV/AIDS, 44.3% showed a negative attitude. The scores for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HIV/AIDS were higher among males, unmarried individuals, individuals with a higher income, individuals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individuals working in agriculture, forestry, or fishery, managers, professions that were not homemakers/unemployed, and professional soldiers. A positive correlation ($r=0.27$, $p<0.001$) was observed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he factors influencing AIDS knowledge and attitude were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level,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y age group. As such, educational programs customized by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are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knowledge and in developing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HIV/AIDS.

Keywords : Knowledge, Attitude, HIV, AIDS, Community Health Survey

*Corresponding Author : Kyong Sil Park(Cheju Halla Univ.)

Tel: +82-64-741-6737 email: hanibal0505@chu.ac.kr

Received August 31, 2018

Revised (1st September 21, 2018, 2nd October 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HIV 감염되면 세포성 면역에 관계되는 CD4+ T 림프구가 주로 파괴된다. 에이즈는 면역의 기능을 심하게 손상 받게 되면서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감염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지칭하는 증후군이다[1]. AIDS는 1981년에 동성애 집단에서 주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pneumonia) 또는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등의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보고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졌다[2].

HIV는 현재까지 3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문제이다. 2016년에는 전세계적으로 HIV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HIV 감염인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를 받게 되면서 생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규 HIV 감염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3] 생존하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2016년 한해 1,199명이 신규 HIV 감염인으로 신고되었으며, 내국인은 1,062명, 외국인은 137명으로, 남자 1,105명, 여자 94명으로 11.8:1의 성비를 보인다. 연령의 구성은 20대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1%, 40대 18.6%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4.4%를 차지한다. HIV 감염경로는 응답자에 한해서 100%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다[4]. 최근 3년 동안의 HIV/AIDS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대 30.8%, 30대 23.7%, 40대 19.2%로 전체 73.7%, 2015년 20대 33.3%, 30대 24.1%, 40대 18.8%로 전체 76.2%, 2016년 20대 33.7%, 30대 24.1%, 40대 18.6%로, 전체 74.4%를 차지하며, 2014-2016년동안 신규 감염인 20-40대가 전체의 약 73-76%를 차지하고 있다[4,5,6].

국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근거하여 민간단체 및 국가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위험집단별 교육 및 홍보 실시, 대상별 교육 및 홍보 실시, 교육 및 훈령 강화, 정부와 민간협력 행사를 통한 에이즈 관심유도 등의 활동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7]. 하지만, HIV 감염이 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20-40대에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HIV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중재가 미흡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 신규 감염인이 3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성인들을 위한 HIV/AIDS의 맞춤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HIV/AIDS 지식 및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대상이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다. 국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7-14], 의료인 및 관련 직종[15-18], 일반인[19-22], 군인[23-24]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통해 HIV/AIDS의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HIV 신규 감염인이 많이 발생하는 20-40대의 연령별 지식 및 태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IV 신규 감염인의 약 75%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인 20-40대의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HIV/AIDS의 지식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구축을 위한 연령별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1년,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0대 HIV/AIDS의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20-40대의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대상자의 HIV/AIDS 지식의 점수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HIV/AIDS 태도의 점수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HIV/AIDS 지식 및 태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HIV/AIDS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40대 HIV/AIDS의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2011년, 201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 하였다. 원시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 신청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표본 추출 방법은 거주 지역(동/읍·면 주택유형별 층화) 구성비를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25].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혼련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활용한 1:1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26].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에이즈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년도는 2011년과 2013년이다. 2011년과 2013년 자료를 합친 총 458,007명의 데이터 중에 ‘에이즈에 대한 인지 여부’에 ‘예’ 라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자로 1차 선정하였다(n=313,917). 이 중 에이즈 지식 및 태도에 ‘결측’ 및 ‘응답거부’한 경우를 제외(n=462명)하여 총 인원 313,455명을 2차 선정하였다. 이 중 연구대상자를 만 20세부터 만 49세로 설정하여 최종 분석대상자는 182,315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에이즈 지식

에이즈 지식의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콘돔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Q1)’,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Q2)’, ‘모기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Q3)’,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Q4)’이다[26]. 에이즈 지식 점수는 4개 문항 중 올바르게 답한 문항 수의 합으로 산정하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하고, 올바르게 답한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 처리하였다. 총 점수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 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에이즈 태도

에이즈 태도의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생긴다면 집에서 돌보겠다(Q1)’, ‘에이즈 감염인이 일하는 가게에서도 채소나 과일을 사겠다(Q2)’,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겠다(Q3)’,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겠다(Q4)’이다[26]. 에이즈 태도 점수는 4개 문항 중 올바르게 답한 문항의 수의 합으로 산정하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 1점, 부정적인 경우 0점 처리하였다. 총 점수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 태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분석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이즈 지식 및 태도는 빈도 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 에이즈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에이즈 지식과 태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에이즈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투입(enter)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와 허용도(tolerance)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에서 남자 46.8%, 여자 53.2%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20-40대 전체에서 40대가 42.5%, 30대가 35.6%, 20대가 21.9%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전체에서 기혼이 6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20대에서는 미혼이 82.4%를, 30대는 기혼이 74.0%를 40대에서는 기혼이 83.8%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은 전체에서 200-400만원 미만이 약 42.3%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전체에서 고졸이 4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대는 고졸이 49.6%, 30대는 고졸이 37.82%, 40대는 고졸이 50.81%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전체에서 주부/무직이 21.0%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학생이 24.5%, 30대는 주부/무직이 25.78%, 40대는 기능/장치/단순노동이 24.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82315)

Characteristics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Total
Categories	N (%)	N (%)	N (%)	N (%)
Gender				
Men	18300 (45.9)	30051 (46.3)	37051 (47.8)	85402 (46.8)
Women	21563 (54.1)	34839 (53.7)	40511 (52.2)	96913 (53.2)
Marital status (n=182215)				
Single	32854 (82.4)	14147 (21.8)	4715 (6.1)	51716 (28.4)
Married	6713 (16.8)	48021 (74.0)	64927 (83.8)	119661 (65.7)
Separated/Divorced/Widowed	286 (0.7)	2691 (4.1)	7861 (10.1)	10838 (5.9)
Income(month) (n=172950)				
<200	6885 (18.3)	8396 (13.6)	11248 (15.3)	26529 (15.3)
200-299	7675 (20.4)	14732 (23.8)	13474 (18.3)	35881 (20.7)
300-399	7486 (19.9)	14526 (23.5)	15389 (20.9)	37401 (21.6)
400-499	5281 (14.1)	9758 (15.8)	11934 (16.2)	26973 (15.6)
500-599	5056 (13.5)	7836 (12.7)	11010 (15.0)	23902 (13.8)
≥ 600	5203 (13.8)	6645 (10.7)	10416 (14.2)	22264 (12.9)
Education (n=182125)				
Uneducated/Primary	74 (0.2)	183 (0.3)	1966 (2.5)	2223 (1.2)
Middle	438 (1.1)	946 (1.5)	5618 (7.3)	7002 (3.8)
High	19777 (49.6)	24529 (37.8)	39342 (50.8)	83648 (45.9)
College	7999 (20.1)	14620 (22.5)	8717 (11.3)	31336 (17.2)
University	11026 (27.7)	21465 (33.1)	18476 (23.9)	50967 (28.0)
Graduate	532 (1.3)	3110 (4.8)	3307 (4.3)	6949 (3.8)
Occupation (n=182108)				
Professional administrator or Manager	7361 (18.5)	12956 (20.0)	13133 (16.9)	33450 (18.4)
Office worker	5930 (14.9)	12164 (18.8)	10517 (13.6)	28611 (15.7)
Sales/Customer service	4782 (12.0)	9395 (14.5)	15224 (19.6)	29401 (16.1)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263 (0.7)	1426 (2.2)	4649 (6.0)	6338 (3.5)
Skill labor	4420 (11.1)	11303 (17.4)	18961 (24.5)	34684 (19.0)
Soldier	423 (1.1)	633 (1.0)	355 (0.5)	1411 (0.8)
Student	9751 (24.5)	231 (0.4)	55 (0.1)	10037 (5.5)
Housewife/unemployment	6881 (17.3)	16708 (25.8)	14587 (18.8)	38176 (21.0)

3.2 에이즈 지식 및 태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문항을 각각 살펴보면, ‘콘돔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79.1%를 차지하였고, 30대가 81.2%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는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74.6%를 차지하였고, 40대가 69.2%로 가장 낮고, 30대가 7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모기로도 에이즈 감염될 수 있다.’는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41.7%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매우 낮으며, 20대가 40.8%로 가장 낮고, 40대가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82.6%로 지식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30대가 84.2%로 가장 높고, 40대가 8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생기면 집에서 돌보겠다.’는 문항의 전체 긍정태도는 45%로, 20대가 48.3%로 가장 높게, 30대가 43.7%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에이즈 감염인이 일하

는 가게에서도 채소나 과일을 사겠다.’는 문항의 전체 긍정태도는 31.4%이며, 30대가 3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겠다.’는 문항의 전체 긍정태도는 30.1%로 40대가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30대가 2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는 문항의 전체 긍정태도는 70.7%로 태도문항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의 문항이며, 40대가 7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20대가 68.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2).

Table 2. Knowledge and Attitude questions of HIV/AIDS (N=182315)

Question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Total
	N (%)	N (%)	N (%)	N (%)
Knowledge questions of HIV/AIDS				
Q1	31695 (79.5)	52671 (81.2)	59855 (77.2)	144221 (79.1)
Q2	31235 (78.4)	51054 (78.7)	53670 (69.2)	135959 (74.6)
Q3	16282 (40.8)	27123 (41.8)	32681 (42.1)	76086 (41.7)
Q4	32880 (82.5)	54660 (84.2)	62992 (81.2)	150532 (82.6)
Attitude questions of HIV/AIDS				
Q1	19250 (48.3)	28346 (43.7)	34404 (44.4)	82000 (45.0)
Q2	12562 (31.5)	20053 (30.9)	24682 (31.8)	57297 (31.4)
Q3	11879 (29.8)	17462 (26.9)	25514 (32.9)	54855 (30.1)
Q4	27129 (68.1)	45775 (70.5)	56002 (72.2)	128906 (70.7)

3.3 연령군에 따른 에이즈 지식의 차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점수의 평균은 20대 2.81점, 30대 2.86점, 40대 2.70점으로, 30대의 지식 점수가 가장 높고, 40대의 지식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20-40대 지식 점수가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0대 남성의 지식 점수가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여성의 지식 점수가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에서 20-40대 모두 미혼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식 점수가 높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 지식 점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대 미혼의 지식 점수가 2.87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혼/별거/사별의 지식 점수가 2.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에서 20-40대 모두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지식 점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대 6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식 점수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2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식 점수가 2.44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서 20-40대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식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40대 대학원 이상의 경우 3.14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무학/초졸의 경우 1.87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에서 20대는 직업군인, 관리자 및 전문가, 학생 순으로 지식 점수가 높았고, 농림어업, 주부/무직이 낮은 지식 점수를 보였고, 30대와 40대는 직업군인, 관리자 및 전문가, 학생이 지식 점수가 높고, 농림어업, 주부/무직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Age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M±SD	t or χ^2 (p)	M±SD	t or χ^2 (p)	M±SD	t or χ^2 (p)
Total	2.81±1.02		2.86±1.01		2.70±1.11	
Gender						
Men	2.87±1.00	11.40	2.94±0.98	20.26	2.81±1.09	26.13
Women	2.76±1.04	(<.001)	2.78±1.03	(<.001)	2.60±1.13	(<.001)
Marital status						
Single	2.82±1.02	11.11	2.87±1.03	28.49	2.70±1.15	65.90
Married	2.76±1.01	(<.001)	2.86±1.00	(<.001)	2.71±1.11	(<.001)
Separated/Divorced/Widowed	2.71±1.01		2.71±1.08		2.56±1.13	
Income(month)						
<200	2.71±1.06	27.40	2.68±1.10	118.87	2.44±1.19	283.07
200-299	2.79±1.01	(<.001)	2.8±1.02	(<.001)	2.59±1.14	(<.001)
300-399	2.83±1.02		2.88±1.00		2.69±1.10	
400-499	2.86±1.00		2.92±0.97		2.79±1.07	
500-599	2.83±1.01		2.97±0.96		2.84±1.04	
≥600	2.92±0.98		3.00±0.96		2.91±1.03	
Education						
Uneducated/Primary	2.09±1.24	91.18	2.15±1.28	421.47	1.87±1.26	1013.59
Middle	2.34±1.09	(<.001)	2.29±1.19	(<.001)	2.17±1.21	(<.001)
High	2.76±1.04		2.68±1.06		2.60±1.12	
College	2.76±1.04		2.89±0.98		2.86±1.02	
University	2.96±0.95		3.03±0.93		3.00±0.98	
Graduate	3.03±0.96		3.14±0.88		3.14±0.91	
Occupation						
Professional administrator/Manager	2.92±0.98	45.57	3.03±0.93	139.15	2.96±1.00	270.37
Office worker	2.85±0.99	(<.001)	2.96±0.97	(<.001)	2.92±1.04	(<.001)
Sales/Customer service	2.72±1.04		2.82±1.03		2.66±1.10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2.69±1.10		2.62±1.13		2.44±1.21	
Skill labor	2.70±1.04		2.75±1.04		2.56±1.14	
Soldier	2.96±0.93		3.11±0.89		3.08±0.97	
Student	2.88±1.00		3.02±0.92		2.67±1.04	
Housewife/unemployment	2.70±1.06		2.75±1.04		2.59±1.14	

3.4 연령군에 따른 에이즈 태도의 차이

에이즈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은 20대 1.78점, 30대 1.72점, 40대 1.81점으로, 40대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고, 30대의 태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20-40대 태도 점수가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0대 남성의 태도 점수가 1.89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의 태도 점수가 1.64점으로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에서 20-40대 모두 미

혼의 경우 태도 점수가 높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 태도 점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대 미혼의 태도 점수가 1.83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기혼의 태도 점수가 1.58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에서 20-40대 모두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태도 점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600만원 이상의 경우 태도 점수가 1.95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태도 점수가 1.67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에서 20-40대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태도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대학원 이상의 경우 2.12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중졸의 경우 1.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에서 20대는 직업군인, 학생, 관리자 및 전문가 순으로 태도 점수가 높고, 농업·어업, 주

부/무직이 낮은 태도 점수를 보였다. 30대는 학생,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군인 순으로 태도 점수가 높고, 농업·어업, 주부/무직이 낮은 태도 점수를 보였다. 40대는 직업군인, 관리자 및 전문가, 학생이 태도 점수가 높고, 농업·어업, 주부/무직이 낮은 태도 점수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Attitude according to the Age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M±SD	t or χ^2 (p)	M±SD	t or χ^2 (p)	M±SD	t or χ^2 (p)
Total	1.78±1.18		1.72±1.17		1.81±1.21	
Gender						
Men	1.82±1.20	6.53	1.81±1.20	18.45	1.89±1.24	18.04
Women	1.74±1.16	(<.001)	1.64±1.14	(<.001)	1.74±1.17	(<.001)
Marital status						
Single	1.82±1.19	125.13	1.83±1.22	85.83	1.82±1.27	9.84
Married	1.58±1.13	(<.001)	1.69±1.16	(<.001)	1.82±1.20	(<.001)
Separated/Divorced/Widowed	1.59±1.16		1.70±1.19		1.76±1.20	
Income(month)						
<200	1.74±1.19	10.11	1.71±1.21	18.13	1.71±1.22	66.28
200-299	1.77±1.17	(<.001)	1.67±1.16	(<.001)	1.75±1.20	(<.001)
300-399	1.75±1.16		1.72±1.16		1.80±1.20	
400-499	1.79±1.17		1.72±1.16		1.86±1.21	
500-599	1.80±1.20		1.80±1.18		1.89±1.21	
≥ 600	1.88±1.18		1.81±1.17		1.95±1.21	
Education						
Uneducated/Primary	1.59±1.25	17.20	1.56±1.16	64.89	1.57±1.18	165.52
Middle	1.55±1.14	(<.001)	1.57±1.15	(<.001)	1.61±1.18	(<.001)
High	1.78±1.19		1.65±1.16		1.75±1.19	
College	1.70±1.15		1.68±1.16		1.85±1.20	
University	1.82±1.18		1.80±1.18		1.96±1.23	
Graduate	1.95±1.18		1.94±1.23		2.12±1.23	
Occupation						
Professional administrator/Manager	1.85±1.18	28.78	1.86±1.20	62.95	2.00±1.24	81.73
Office worker	1.75±1.15	(<.001)	1.76±1.17	(<.001)	1.87±1.21	(<.001)
Sales/Customer service	1.76±1.18		1.73±1.18		1.78±1.20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1.56±1.21		1.56±1.22		1.62±1.21	
Skill labor	1.71±1.18		1.72±1.18		1.78±1.20	
Soldier	1.88±1.13		1.78±1.20		2.05±1.23	
Student	1.87±1.20		1.97±1.28		1.93±1.20	
Housewife/unemployment	1.65±1.15		1.59±1.13		1.73±1.18	

3.5 에이즈 지식 및 태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0.27로($p<.001$), 40대($r=0.29$, $p<.001$)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30대($r=0.27$, $p<.001$), 20대($r=0.25$, $p<.0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ttitude
Knowledge	
Total	0.27**
20-29 year	0.25**
30-39 year	0.27**
40-49 year	0.29**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3.6 에이즈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대($F=516.43$, $p<.001$),

30대($F=1136.40$, $p<.001$), 40대($F=1874.23$, $p<.001$), 대상자 전체($F=3575.01$,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각각 8.0%, 10.0%, 13.0%, 11.0%이다. 20대의 경우 에이즈 태도($\beta=0.25$)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교육수준($\beta=0.10$), 성별($\beta=-0.06$), 소득수준($\beta=0.03$)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에이즈 태도($\beta=0.25$)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교육수준($\beta=0.14$), 성별($\beta=-0.05$), 소득수준($\beta=0.03$), 직업($\beta=-0.02$), 결혼상태($\beta=0.01$)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에이즈 태도($\beta=0.27$)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교육수준($\beta=0.19$), 성별($\beta=-0.04$)과 소득수준($\beta=0.04$), 직업($\beta=-0.02$), 결혼상태($\beta=-0.01$)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경우 에이즈 태도($\beta=0.25$)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교육수준($\beta=0.17$), 성별($\beta=-0.05$), 소득수준($\beta=0.04$), 결혼상태($\beta=-0.02$), 직업($\beta=-0.01$)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Knowledge on HIV/AIDS

Characteristics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Total		
	β	t	p	β	t	p	β	t	p	β	t	p
Gender	-0.06	-12.69	< .001	-0.05	-12.75	< .001	-0.04	-12.29	< .001	-0.05	-22.79	< .001
Marital status	0.00	0.49	0.625	0.01	3.49	< .001	-0.01	-2.13	0.033	-0.02	-7.10	< .001
Income (month)	0.03	6.64	< .001	0.03	8.66	< .001	0.04	10.93	< .001	0.04	15.15	< .001
Occupation	0.00	0.28	0.776	-0.02	-5.14	< .001	-0.02	-5.28	< .001	-0.01	-2.92	0.004
Education	0.10	17.52	< .001	0.14	34.43	< .001	0.19	49.25	< .001	0.17	68.56	< .001
Attitude	0.25	49.55	< .001	0.25	65.16	< .001	0.27	76.64	< .001	0.25	111.40	< .001
F	516.43*			1136.40*			1874.23*			3575.01*		
R ²	0.08			0.10			0.13			0.11		

* $p<.001$

3.7 에이즈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대($F=459.33$, $p<.001$), 30대($F=838.76$, $p<.001$), 40대($F=1177.52$, $p<.001$), 대상자 전체($F=2376.12$,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각각 7.0%, 8.0%, 9.0%, 8.0%이다. 20대의 경우 에이즈 지식($\beta=0.25$)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결혼상태($\beta=-0.07$), 성별($\beta=-0.01$)과

소득수준($\beta=0.01$)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에이즈 지식($\beta=0.26$)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성별($\beta=-0.04$), 결혼상태($\beta=-0.03$)와 직업($\beta=-0.03$)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에이즈 지식($\beta=0.28$)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성별($\beta=-0.04$), 소득수준($\beta=0.02$)과 교육수준($\beta=0.02$), 직업($\beta=-0.01$)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경우 에이즈 지식($\beta=0.26$)이 가장 큰 영향 요

인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성별($\beta=-0.04$), 소득수준($\beta=0.02$)과 직업($\beta=-0.02$), 결혼상태($\beta=-0.01$)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Attitude on HIV/AIDS

Characteristics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Total		
	β	t	p	β	t	p	β	t	p	β	t	p
Gender	-0.01	-1.98	0.048	-0.04	-9.30	< .001	-0.04	-9.63	< .001	-0.04	-15.40	< .001
Marital status	-0.07	-13.01	< .001	-0.03	-7.86	< .001	0.00	1.33	0.182	-0.01	-4.18	< .001
Income (month)	0.01	2.79	0.005	0.01	1.51	0.130	0.02	5.58	< .001	0.02	8.45	< .001
Occupation	-0.01	-1.14	0.256	-0.03	-7.40	< .001	-0.01	-3.08	0.002	-0.02	-9.61	< .001
Education	0.00	-0.57	0.572	0.01	1.81	0.070	0.02	5.44	< .001	0.00	0.02	0.984
Knowledge	0.25	49.55	< .001	0.26	65.16	< .001	0.28	76.64	< .001	0.26	111.40	< .001
F	459.33*			838.76*			1177.52*			2376.12*		
R ²	0.07			0.08			0.09			0.08		

*p< .001

4. 논의

본 연구는 20-40대 젊은 성인의 HIV/AIDS 관련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일반인들의 HIV/AIDS 지식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실시되었다.

HIV/AIDS 관련 지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의 평균 응답률이 69.5%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기로도 에이즈 감염될 수 있다.’는 문항은 전체 41.7%의 응답률로 20-40대 모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조금 높은 결과이나[19-20], 의학전문대학원생(69.8%)[8], 간호사(55.9%)[18], 군인(48.3%)[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20-40대의 일반인들이 HIV/AIDS 감염에 대한 경로를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문항은 30-40대보다 20대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40.8%)을 보이고 있어 20대 HIV 신규 감염인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혼전성관계에 대한 성의식 개방성이 높은[27] 20대를 대상으로 HIV/AIDS 감염경로 지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HIV/AIDS 관련 태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의 긍정적인 태도률이 44.3%로 부정적 태도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생

기면 집에서 돌보겠다.’는 문항의 긍정적 태도률이 45.0%로, 의학전문대학원생(85.6%)[9]과 달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예비의료인보다는 HIV감염이 일상생활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 올바른 지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생기면 집에서 돌보겠다.’, ‘가족 중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는 문항처럼 가족에 대한 문항은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에이즈 감염인이 일하는 가게에서도 채소나 과일을 사겠다.’,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겠다.’는 문항처럼 타인에 대한 문항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타인에게는 HIV감염에 대한 낙인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HIV/AIDS 감염인을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 동성애 등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28]. 또한, 본 연구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항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20-22]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빈도가 높은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군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서양에 비해 부모-자녀의 강한 유대감 형성 및 부모나 자녀의 정서적 경험의

동일시 등의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어[29]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에이즈 지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일수록, 미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은 농림어업, 주부/무직보다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군이면 지식 및 태도 점수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0-21]. HIV/AIDS의 지식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이혼·별거·사별한 대상자, 농림어업 및 주부/무직인 대상자,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 여성 대상자에 대한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30대의 경우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태도 점수는 가장 낮았으며, 이 중에서도 30대 여성의 태도 점수는 가장 낮았다. 40대의 경우 지식 점수는 가장 낮으나 태도 점수는 가장 높았으며, 이 중에서도 40대 여성의 지식 점수는 가장 낮고, 40대 남성의 태도 점수는 가장 높았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 사이는 양의 상관관계로 20-40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HIV/AIDS 지식과 태도의 상관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들[7,9,12,14,16-18,22-24]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에이즈 지식은 에이즈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 변인으로 에이즈 지식의 부족이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22]. 이처럼 에이즈와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태도와 지식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15-21]에서 연령,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이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지식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별,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고려하고, 30대의 경우 성별,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을 고려하고, 40대의 경우 성별,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특성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HIV/AIDS 유병률이 낮

은 국가에 포함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방 및 관리에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무료 익명검사 서비스와 신속검사 및 자가검진키트 판매 등의 다양화 등을 통해 조기검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대국민 감염위험집단별, 대상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 하지만, 여전히 에이즈 지식 및 태도가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및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에이즈 지식과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경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내용보다는 연령별, 특성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40대 젊은 성인의 HIV/AIDS 관련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인들의 HIV/AIDS 지식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다. 에이즈 지식은 문항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았고, 에이즈 태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대는 잘못된 감염경로 정보를 인식하고 있고, 30대는 지식은 높은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식과 태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연령,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이 있었으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특성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HIV 감염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인 20-40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에이즈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20대의 HIV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대의 지식문화에서 감염경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됨을 인지하여 추후 20대 연령군의 지식 및 태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횡단적 연구가 아닌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지식 및 태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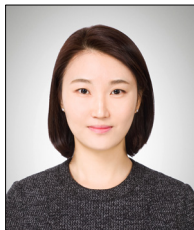
References

-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Management Guideline on the HIV/AIDS in Korea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1-MNU1154-MNU0725-MNU0088&cid=77274>
- [2] The Korean Society for AIDS, "The 2015 Clinical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pportunistic Infections in HIV-Infected Koreans: Guidelines for Opportunistic Infections", *Infect Chemother*, Vol.48, No.1 pp. 54-60, 2016. DOI: <https://doi.org/10.3947/ic.2016.48.1.54>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Fact sheet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60/en/>. (Accessed Aug, 9, 2018)
- [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cdc.go.kr/CDC/info/CdcKrInfo0128.jsp?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26-MNU1448&cid=75787> (Accessed Aug, 9, 2018)
-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5-MNU0037&cid=7043> (Accessed Aug, 9, 2018)
- [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cdc.go.kr/CDC/intro/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5-MNU0011&cid=64360> (Accessed Aug, 9, 2018)
- [7] H. S. Lee, H. Park, K. H. Kim, M. R. Kim, M. Kim, B. N. Kim, E. K. Kim, E. Y. Kim, J. H. Kim, H. J. Seong, M. Song, "A Study on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V/AIDS and Hepatitis B",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3 pp. 474-487, 2015.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5.29.3.474>
- [8] Y. Kim, J. S. Han, O. Le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HIV/AIDS in Comparison with Chronic Hepatitis B among Female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40, No.2 pp. 31-39, 2014.
- [9] M. H. Seo, S. H. Jeong, J. H. Shin, M. I. Le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HIV/AIDS among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 255-265,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255>
- [10] Y. S. Rhe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Knowledge,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 338-344,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338>
- [11] M. H. Sung,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AIDS of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5, No.2 pp. 221-228, 2008.
- [12] H. M. Ahn, J. S. Yoo, C. G. Park, M. O. Kim,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2, No.1 pp. 108-120, 2008.
- [13] S. S. Choi, Y. H. Lee,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4, No.3 pp. 77-87, 2013.
- [14] S. H. Kim, M. You, Y. J. Son, "Factors Influencing on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 2459-2472, 2011.
- [15] A. N. Han, S. H. Choi,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Infection Behaviors regarding AIDS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5, No.2 pp. 1-12, 2014.
- [16] H. Kim, E. Choi, J. Yang,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IV/AIDS between Health Care Officers and Adults from the General Public in G. City S.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28, No.- pp. 33-60, 2010.
- [17] M. H. Sung,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on Behaviors to AIDS in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17, No.1 pp. 14-22, 2008.
- [18] J. S. Han, H. Cho, Y. Kim, O. H. Kim,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Nursing Intention toward AIDS and Chronic Hepatitis B",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1, No.3 pp. 201-208, 2012. DOI: <https://dx.doi.org/10.5807/kjohn.2012.21.3.201>
- [19] C. H. Yeom, H. R. Lee, Y. S. Choi,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Unmarried Young Men on AID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4, No.1 pp. 4-13, 2001.
- [20] Y. Yang, "Types of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in a Korean Population and Their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41, No.4 pp. 51-62, 2015.
- [21] S. Y. Kim, J. S. Lee, S. K. Park, Y. I. Kim,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AIDS in a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5, No.4 pp. 13-28, 2008.
- [22] H. Oh, E. Jeon, B. Lee, "The Effect of Acquiring HIV/AIDS Information through Different Television Programs on AIDS Knowledge and AIDS Stigma - The Moderating Role of AIDS Education",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Vol.14, No.4 pp 55-101, 2016. DOI: <https://doi.org/10.21328/JMEC.2016.11.14.4.55>
- [23] E. S. Moon, J. H. Sun, E. S. Choi, "A Study on

- Soldiers' Knowledge, Attitude and Health Belief about AID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15, No.2 pp. 298-307, 2004.
- [24] N. C. Kim, J. A. Oh, H. J. Hann, M. H. Kim, J. K. Kim, H. J. Lee, M. J. Kim, "Sexual Orientatio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among Military Personnel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16, No.2 pp. 225-238, 2002.
- [2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mmunity Health Survey Contents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s://chs.cdc.go.kr/chs/sub02/sub02_01.jsp (Accessed Aug, 9, 2018)
- [2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2013 Community Health Survey Guidebooks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s://chs.cdc.go.kr/chs/sub03/sub03_04_01.do (Accessed Aug, 9, 2018)
- [27] H. Y. Jo, Y. H. Kim, H. M. Son,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1, No.5 pp. 29-43, 2014.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14.31.5.29>
- [2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2015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s://www.cdc.go.kr/CDC/info/CdcKrInfo0129.jsp?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26-MNU1560&fid=10200&q_type=&q_value=&cid=127184&pageNum (Accessed Aug, 14, 2018)
- [29] J. S. Lee, G. T. Kim, C. G. Park, "Korean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based on Cultural Psyc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0, No.3 pp. 343-372, 2010.

박 경 실(Kyong Sil Park)

[정회원]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8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8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심·혈관질환, 성